

POBA LIFE

POBA MAGAZINE VOL.20



인터뷰
청주시청
청년정책팀

회원 추천 여행지
경상북도 영주시

테마
#국내여행

제철 요리법
춘곤증을 이기는 봄의 맛,
냉이

POBA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희 이사장

POBA NEWS

POBA 광장

03 POBA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희 이사장

07 POBA 인베스트먼트

공제회가 투자한 국내/해외자산

09 공제제도 알아보기

복지급여

11 POBA 뉴스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상 수상 및 회원 이벤트 소식

회원 마당

13 인터뷰 <청주시 청년정책팀>

청년 정책에 진심을 다하는 청주시청 청년정책팀과의 만남

17 인터뷰 <영주시청 김가람 주무관>

영주의 봄을 전하는 영주시청 홍보기획팀 김가람 주무관과의 만남

21 회원 추천 지역 맛집

깊고 개운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 청주 대표 음식 짜글이 소개

25 제철 요리법 <냉이>

냉이의 효능과 냉이 페스토 샌드위치 조리법 소개

29 재테크 칼럼 <환테크>

3고 시대의 환테크 방법

33 2060 재테크 체크리스트

20대를 위한 재테크 체크리스트 소개

38 추천 문화행사

추천 전시회, 뮤지컬 소개

테마 라운지 [국내 여행]

42 테마 칼럼

나의 여행은 이 땅의 호흡을 닮는다

46 인터뷰 <창녕군청 구민아 주무관>

여행 에세이를 낸 창녕군청 구민아 주무관 인터뷰

50 꽃 축제 추천

전국의 대표적인 꽃 축제

53 차박 여행 추천

봄에 떠나기 좋은 차박 여행지 6

2023년에도 공제회원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희 이사장

작년 8월 행정공제회 수장으로 취임한 김장희 이사장.

경제 상황이 엄혹했던 2022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공제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김장희 이사장을 만나 행정공제회의 2023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작년 8월 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느껴집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 년 근무하다 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익히는 한편, 회원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전사적 대응을 통한 유동성 등의 위기 극복,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에는 공제회 창립 48주년 기념일을 맞아 윤리경영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일상화하여 회원과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공제회 CEO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공제회 CEO로서 저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이 감동하는 공제 서비스 제공’,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 ‘미래 혁신적 경영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제회의 비전과 전략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원과의 소통과 공감, 대내외 현안 조정 및 협상 등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회원중심 공감경영’, ‘변화주도 혁신경영’, ‘성과중심 데이터기반경영’을 3대 공제회 경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비전과 과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요즘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많이 중요시되는 것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저는 소통과 공감의 기본은 상호 간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조직 또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그동안 저희 행정공제회를 지켜본 바로는 직원들이 상당히 성실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조직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Q 2022년도 투자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경영 실적과 회원 만족도 증가 등 꽤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3일에 취임했는데 9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무섭게 격변하는 금융시장을 보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2022년을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 공제회는 자산 21조 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공적 연기금 순위 98위에 오르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수준의 연기금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약 5,440억 원을 달성해 ‘2년 연속 5천억 원 이상 순이익’이라는 쾌거를 기록하고, 2016년부터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원사업 부문에서도 조직 개편을 통한 기능별 전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금리 인상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회원 만족도가 2021년의 86.2점에서 2022년에는 90.1점으로 크게 개선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참고로 저희 공제회는 지난 2월 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투자 전문 미디어 기관인 <아시아인베스터>가 선정하는 2022년도 최우수 투자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장 환경 대응과 혁신, ESG 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제회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22년에 자산 운용과 관련해 특히 어떤 점이 어려웠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경색된 환경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산 운용에도 악재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회 임직원 모두는 전사적인 비상대응체계(Contingency Plan)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 부분별로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악화에 대비해 조기 이익 실현과 자산 유동화, 투자 시기 조정 등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올해도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유동성 등 다양한 위기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예상 자산 규모와 자금 운용 수익률 목표가 궁금합니다

올해 공제회 자산은 2022년 말 대비 약 2조 2천억 원 늘어난 23조 3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에게는 시장금리를 상회하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약 1조 2천억 원의 회비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목표수익률은 5.3%, 경영 수익은 약 1조 2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500억 원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2023년의 경영 환경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지만, 공제회는 이에 대비해 투자 전략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공제회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2023년 주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제회는 작년에 회원조직 개편을 통해 서비스 혁신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는 회원의 니즈를 반영해 단기금융상품 등 신규 공제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회원 콘도에 약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신규 객실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회원복지기금’으로 2022년에 165억 원을 적립했고, 올해는 300억 원을 적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회원들이 체감하는 효용은 지역별 또는 연령별로 편차가 있어 서비스의 격차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회원 소통 및 공감 경영 확대와 전략적 홍보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권 및 사모 신용 자산군 확대, 실물 자산의 가격 변동성 등 모니터링 강화, 선제적 투자 기회 포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자산군별 선제적 리스크 점검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층별 역량 교육 강화,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 등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 행정공제회 CEO로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은 복리에 의한 부가금 지급 등 여타의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퇴직과 공무원연금 개시 시점 차이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충분치 않은 수급액 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금융상품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외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간 경영 여건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회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의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단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공제회가 지난 48년간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해왔듯이, 앞으로도 34만 공제회원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목표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행정공제회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공제회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EO로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무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차게 달려봅시다!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오피스 자산과 접근성이 용이한 학생 주거 시설에 투자

행정공제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한 부산의 오피스 자산에, 해외에서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학생 주거시설에 투자했다.

국내 자산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해운대 홈플러스 오피스 자산 투자 진행



행정공제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의 홈플러스 해운대점 오피스 자산에 투자했다. 홈플러스 해운대점은 부산 내 최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한 마린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산 대표 업무지구인 센텀시티에서 차량으로 10분 만에 도달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해운대로, 광안대로, 동해고속도로 등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며 향후 만덕~센텀지하고속화도로, 사상~해운대고속도로, KTX-이음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부산 주요거점으로서 확고히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 홈플러스점은 2023년 9월까지 영업 후 철거하여 다각화되는 오피스 수요에 맞춰 오는 2028년 9월 섹션오피스 900실과 서비스오피스 594실로 개발 예정이다. 섹션오피스는 최소 유닛 단위만큼 분리 설계되어 입주사의 선호에 맞게 필요한 면적만큼 확장하여 자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라이브오피스는 섹션오피스의 한 형태로 욕실 및 주방이 업무시설과 결합된 형태로 입주사가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지향적 랜드마크 오피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산 독일 베를린의 학생 주거 시설 Berlin I

행정공제회는 학생 기숙사 자산 Berlin I에 투자를 진행했다. Berlin I는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 위치한 자산으로 건물은 7층, 4,920 sqm 규모이며, 유닛 당 평균면적은 21 sqm, 임대율 94%로 Gym, 세탁시설, 공용 스테디룸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자산은 베를린의 중앙역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내의 거리에 5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학생 주거 시설은 대학이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주거시설을 의미하며, 기존 교내 기숙사나 캠퍼스 외부에 소재한 주거자산이 학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과 달리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복지급여

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서 다양한 복지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사망급여금	회비납부액 무관 ※ 순직시 100% 가산	200만원
가족사망급여금	배우자, 일반회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시 지급 - 부부회원의 경우 각각 지급	20만원
요양급여금	일반회원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시 특별회원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시 - 특별회원 지급 가능 상세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요양급여금은 입원일 기준 3년에 1회만 청구 가능	20만원 20만원
재해급여금	일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 주택이 재해로 30% 이상 소·유실 또는 파괴 시 - 회비 납입액에 따라 지급	원금에 따라 100만원~400만원
출산급여금	일반회원이 자녀 출산 또는 입양시 지급(1자녀당) - 부부회원 및 다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20만원
혼인급여금	일반회원 혼인시 - 부부회원의 경우 각각 지급 ※ 혼인급여는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만원
복지지원급여금	직전가입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 ※ 별도 신청 불필요, 정년퇴직으로 퇴직급여 신청시 자동 계산	10만원 20만원

※ 2022.1.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이전 발생 건은 과거 기준 조건/금액 적용)

기타사항

-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지급 사유 발생 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재해 및 사망급여금은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시효 5년)
- 행정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급여 > 복지급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해 및 (회원본인)사망급여금은 서면 신청)

상품 활용 꿀 Tip

- 생애주기 맞춤형(혼인, 출산, 사망 등) 복지급여 지급

각종 경조사 등 사유 발생 시 지급요건 확인하신 후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행정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Q: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원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사유 발생시 가능합니다. 회원(재)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탈퇴 후 재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재해급여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Q: 복지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행정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신청 및 제반서류 등록 가능하며, 사전에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해 및 (회원본인)사망급여금은 서면 신청)

Q: 휴직 시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휴직 시에도 회원자격이 유지가 되어 있으며, 또한 원(재)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초 혼인 시 혼인급여 지급 받았는데, 재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혼인급여는 단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초혼, 재혼 무관)

Q: 자녀 입양시에도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입양시에도 출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점이 회원가입 및 재가입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Q: 열람용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열람용 서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정식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OBA 뉴스 Vol. 20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양질의 회원 서비스를 위해 행정공제회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행정공제회의 반가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1. 행정공제회, 4년 연속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상’ 수상

행정공제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및 투자 전문 미디어 기관인 ‘아시아 인베스터(Asian Investor)’가 선정한 ‘2022년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며 2017년 최초 수상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총 5회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인베스터는 2014년부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위 300여 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역량, 혁신적인 투자기업 및 사례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기관투자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과 혁신, ESG 전략 및 향상된 거버넌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투자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 매월 1박 2일 무료 숙박 체험 이벤트 진행

행정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1박 2일 무료 숙박 체험 이벤트’를 복지물 POBA누리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무료 숙박 체험 이벤트는 오픈 이후 월 평균 약 34,000명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인기 이벤트입니다.
POBA누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매월 1일~15일 응모 접수 후 공정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응모 대상 숙박 시설은 주요 관광도시인 강릉의 씨마크호텔,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말을 활용해 온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매주 토요일에 투숙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기간 : 매월 1~15일

당첨안내 : 매월 16일


투숙일정 : 매주 토요일(성수기 제외)

POBA누리 회원들을 위한

1박 2일 무료숙박 체험 EVENT

Q 무료숙박 체험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인가요?

A POBA누리 회원님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1박 2일 무료숙박 이벤트입니다. 지정된 호텔에 원하는 날짜를 신청해주시면 주정을 통해 1박 2일 무료숙박의 기회를 드립니다.



강릉 씨마크 호텔 ★★★★★

파크로얄 리조트 앤 웰니스 ★★★★★

그랜드 조선 부산 ★★★★★

매월 참여 가능

원하는 숙박시설과 날짜를 선택하여 응모해주세요!

응모기간

1~12일

당첨안내

13일

투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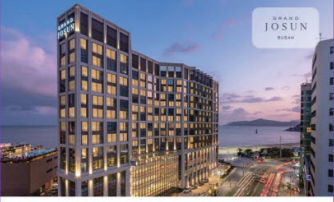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 성수기 제외

1박 2일 무료숙박 5성급 호텔 라인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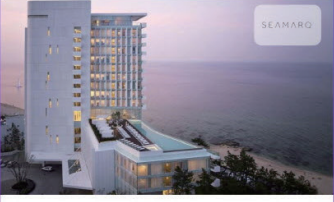
POBA누리에서 준비한 호텔에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세요.



1박 2일 무료숙박

그랜드 조선 부산 5성급 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다목적리조트 | 기준 2인 | 최대 성인 2인 | 소인 1인



1박 2일 무료숙박

강릉 씨마크 호텔 5성급 호텔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휴게타운 다목적리조트 | 기준 2인 | 최대 4인



1박 2일 무료숙박

파크로얄 리조트 앤 웰니스 4성급 호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중평길 9-12
북평 스키장 | 기준 2인

젊은 도시 청주가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청년 인구의 비중이 가장 큰 도시다.
길목 곳곳에서 젊은 기운이 느껴지는 이 도시에서 진심을 다해 청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청 청년정책팀을 만났다.



Q 청주시는 오래전부터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고, 2018년 상생협력담당관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이후 2020년부터는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과 청년정책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일자리팀은 취·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청년정책팀에서 청년 정책을 포함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팀은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청주시 청년 시설인 '청년뜨락5959' 및 '청년꿈제작소'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관련 행사 및 포상 업무, 주거 지원 분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학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청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청정넷’으로 부르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소개해주세요

‘청년정책네트워크’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책도 제안하면서 청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는 2022년 구성된 제5기의 추가 위원을 모집 중이죠. 모집이 완료되면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됩니다.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스, 청년정책포럼,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되지요. 청년정책팀에서 직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했지만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올해부터는 청년뜨락5959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더 가까워서 상호작용하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팀 김명선 주무관, 안은정 과장, 이소현 팀장(왼쪽부터).

Q 마침 이야기가 나온,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 청년뜨락5959도 궁금합니다. 청주시 거주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청주시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어진 ‘청년뜨락’이라는 이름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 마음껏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뜰이라는 의미입니다. ‘5959’는 센터의 도로명 주소인 ‘상당로59번길 59’에서 따온 숫자예요. 한글로 ‘어이구어이구’를 귀엽게 쓰는 말인 ‘오구오구’와 ‘오다’라는 표현으로, 청년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청년뜨락5959는 복합문화체험공간, 공유주방, 자율이용공간, 각종 모임 공간, 청년창업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온·오프라인을 합쳐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에도 약 8천 명이 참여하는 등 청주시 대표 청년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 SK하이닉스 청주와 협력 행사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입지를 다지는 중이에요.



청년뜨락5959

Q 청년뜨락5959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나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뜨락5959 4층에 '일하러59'라는 이름의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청년들에게 공과금 정도만 받고 거의 무료로 작은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인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임대료라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창업 청년들이 꾸준히 찾고 있죠. 입주 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네트워킹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을 다진 후 독립한 청년 창업인들도 여럿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에게 임대료가 필요 없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역의 선배 청년 창업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업 관련 멘토링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이 공간을 방문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청년뜨락5959 이용자들은 대부분 매우 만족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뜨락5959의 역할에 만족하며 기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센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시청 부서보다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청년뜨락5959는 친구 같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청주시와 청년의 매개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사진 | 청주시 청년정책팀 제공



프로그램 운영(가죽 클래스)

Q 청주시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청주시청 청년정책팀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청주시 인구 약 85만 명 중 청년이 24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8% 정도지요. 충청북도 전체 청년 인구의 61%에 해당합니다. 청주시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4세입니다. 전국(43.5세)과 충북(44.2세)에 비해서도 젊죠. 말 그대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팀 팀원들도 ‘일당백’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려올 때 보람을 느낍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을 만날 때면 청년이 청주에서 꿈을 키우고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젊음과 에너지가 반짝이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청주에 청년 인구가 많지만 전체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 인구는 소폭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청년의 수도권 유출 등의 영향이겠지요. 사실 그런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도시 청주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팀으로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청주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청년정책팀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세요

청주시는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반 환경 준비를 위해 올해는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진행 중이에요.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의 발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이었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정립하는 과정,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춘은 가장 에너지 넘치고 용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그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청년을 힘찬 내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정책으로 청주의 청춘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글 정명호 사진 307스튜디오

선비의 고장, 영주의 봄을 소개합니다

영주시청 홍보기획팀 김가람 주무관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지를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직접 소개해준다.
이번 호에서는 ‘선비의 고장’ 영주로 떠나보자.



사람이 태어난 곳만 고향이라 할 수 있을까. 타지에서 태어났지만 영주시청 홍보기획팀에서 근무하며 이곳에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김가람 주무관에게 영주는 또 다른 고향과 다름없다. “방송작가로 일하다 새롭게 시작한 일이 영주시청의 홍보 기획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주를 알리기 위해 이 고장을 속속들이 알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주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 영주

소백산 기운을 받아 번성해 온 곳이자 대대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올곧은 선비 정신을 꽃피운 영주. 통일신라의 시대정신을 아우른 부석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 영주는 최근 KTX의 개통과 함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새로이 다지고 있다.

“영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인 ‘선비의 고장’이에요. 덕분에 시내 곳곳에서 옛 정취가 느껴지는 명소들을 만날 수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에서 소백산, 희방폭포, 죽계구곡의 비경과 소수서원까지. KTX-이음 덕분에 청량리역에서 1시간 40분이면 오갈 수 있는 데다 올 연말에는 이 기차가 서울역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한층 더 가까워진 영주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김가람 주무관이 소개하는 영주의 추천 관광지

올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선비문화축제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풍기인삼축제와 함께 영주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문을 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봄에는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 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영주로 떠나보자.

영주의 추천 봄 관광지 ① 선비세상



2022년 9월 문을 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전국에 한옥마을이나 전통 관련 전시관이 많이 있지만 선비의 삶과 정신세계를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은 영주의 선비세상이 유일하다. 선비세상은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등 여섯 개 촌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촌마다 문화관, 공방, 극장, 놀이방처럼 주제에 맞는 체험과 관람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거의 모든 시설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체험을 통해 실제 선비의 삶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봄이면 매화꽃 가득한 매화공원에서 짧은 계절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영주의 추천 봄 관광지 ② 소수서원과 선비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라고 한다면 단연코 ‘선비정신’을 꼽을 수 있다. 학식과 인품을 기르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온 이 땅의 선비들. 그래서 선비정신은 학문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비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던 기관이 바로 서원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소수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2023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축제 기간에 영주를 방문해 선비촌 한옥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보자.

영주의 추천 봄 관광지 ③ 무섬마을



영주 시가지에서 자동차로 20분이면 도착하는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기 전인 30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로 만든 외나무다리가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라서 ‘시집올 때 가마 타고 한 번, 죽어서 상여 타고 한 번’, 평생에 딱 두 번만 오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는 만죽재를 비롯해 총 아홉 채의 가옥이 경북 문화재자료 및 경북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가옥도 16채나 남아 있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40여 가구가 실제로 이 마을에서 지붕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어 여전히 삶의 생기도 가득한 곳이다.

영주의 추천 봄 관광지 ④ 부석사



영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 부석사.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부석사는 화엄의 종찰로 많은 역사적 의미와 빼어난 건축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찰로 높은 가치를 지닌 사찰이다. 특히 무량수전 앞에서 내려다보는 석양은 ‘국보 0호’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품은 고요한 사찰의 풍경 소리, 하늘 아래 펼쳐지는 푸른 용단 같은 숲, 자연이 주는 자유로움은 세속의 시름을 잊게 해준다.

영주의 추천 봄 관광지 ⑤ 다스림



소백산 자락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림치유원. 건강증진센터와 산림치유마을, 수치유센터, 치유숲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혈압과 체성분을 측정하고 아쿠아 치유실 등에서 건강 치유 체험을 할 수 있어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동안 산림과 교류하며 치유 효과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당일형과 사전 검사 및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2박3일형, 식습관 등 장기적인 치유와 개선을 유도하는 1주일형, 1개월형 등 여행 기간별로 프로그램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주변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글 배수는 사진 307스튜디오 여행지 사진 제공 영주시청

깊고 개운한 그 맛, 청주식 짜글이

‘짜글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 본 사람은 없다는 충청도 향토 음식 짜글이는 찌개와 두루치기의 중간쯤 되는 깊고 개운한 국물 맛으로 오늘도 청주를 지나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이름부터 재미있는 짜글이는 양념한 돼지고기에 버섯, 호박, 양파, 대파, 땡초 등 각종 채소를 듬뿍 넣어 끓여 낸 충청도 향토 음식이다. ‘짜글짜글하게 끓여서’ 붙여진 이름답게 고추장을 기본으로 해서 찌개와 두루치기의 중간쯤 되는 점도로 끓인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가 일품이다. 동네에 따라 짜글이찌개나 짜글짜글찌개, 촌돼지찌개, 돼지고기찌개 등으로도 부른다. 충청도 어디를 가나 어렵지 않게 짜글이 식당을 찾을 수 있지만, 청주에는 유난히 많은 짜글이 맛집이 눈에 띈다. 실제로 아워홈, 오투기, 피코크 같은 유명 식품 브랜드마다 ‘청주식 짜글이’를 간편식이나 밀키트로 판매하는 것을 보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자작하게 국물을 줄여내는 청주식 짜글이는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국물과 듬뿍 들어간 돼지고기 덕에 밥도둑 역할은 물론 술안주로도 인기가 좋다.

백종원도 인정한 청주 대표 음식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짜글이를 한 손가락 입에 넣으면 김치찌개나 두루치기와는 전혀 다른 감칠맛이 불쑥 다가온다. 고소하게 씹히는 돼지고기와 함께 적당히 칼칼하면서도 갖은 채소에서 우러난 개운한 단맛이 배인 국물이 손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끓이는 동안 천천히 줄어드는 국물 맛의 변화를 즐기는 것도 짜글이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대부분 주방에서 한번 끓여서 나오지만 테이블에서도 충분히 끓여줘야 제맛을 볼 수 있다.



감자를 듬뿍 넣어 ‘감자 짜글이’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가게에 따라 묵은지와 두부, 라면을 곁들이기도 하지만 본래 청주식 짜글이에는 돼지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두부도 넣지 않았다고 한다. 청주식 짜글이를 제대로 하는 곳이 아니면 실제로는 국물이 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나오는 식당도 부지기수다.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3대 천왕> 10화 ‘돼지고기 편’에서 백종원이 청주의 짜글이 전문 식당(대추나무집)을 방문하고 그 맛에 감탄하면서 청주의 짜글이는 더욱 인지도를 높였다

국물 졸이는 동안 돼지고기 쌈을 드세요!

짜글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테이블에 놓인 찌개가 맛있게 끓는 동안, 먼저 돼지고기를 쌈으로 먹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동안 센 불로 국물을 졸이다 보면 어느새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맛 좋은 짜글이가 완성된다.

충청도 바깥 지역에서는 국물이 자박해서 밥에 비벼 먹기 좋은 찌개를 그냥 짜글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트에서도 짜글이 밀키트 제품이 눈에 띄고, 어느덧 서울 곳곳에도 짜글이를 파는 식당이 생겨났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다른 짜글짜글 끓는 짜글이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한 번쯤 청주를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제법 중독성을 가진 그 깊고 개운한 맛을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돌아설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청주 짜글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남다른 내공의 시원한 국물 맛! 대추나무집



청주에서 짜글이찌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추나무집을 찾으면 너른 주차장과 식당 건물 주변에 보기 좋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대표 메뉴인 촌돼지짜글찌개의 모습은 대파가 듬뿍 든 닭볶음탕과 비슷하다. 고기는 돼지고기 사태살을 생고기로 사용하는데, 국물을 오래 졸일수록 쫄깃한 식감이 올라온다. 국물에는 대파, 양파, 말린 호박이 듬뿍 들어가 개운한 단맛을 더한다. 느타리버섯이 많은 것도 이곳 짜글찌개만의 특징이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끓일수록 깔끔하게 시원해지는 국물 맛에선 남다른 내공이 느껴진다. 여러 TV 프로그램에 소개됐는데, 그중에서도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등장하면서 ‘백종원도 인정한’ 명실상부 청주식 짜글이 맛집으로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찬으로 나오는 두툼한 버섯전도 별미다.



주소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18번길 5

전화 043-217-8866

영업시간 11~20시(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휴무)

메뉴 촌돼지짜글찌개 1만3천 원, 갈비짜글찌개 1만5천 원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송학식당



청주 서문시장 주변에 자리한 덕분에 청주 시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송학식당의 대표 메뉴 짜글짜글에는 낙지까지 한 마리 보기 좋게 들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일 점심시간(11시~14시 30분)에는 낙지와 공깃밥은 물론 맛갈난 달걀찜까지 포함된 점심 특선 메뉴를 단돈 1만 원에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한 가성비를 내세우는 맛집도 드물지 않을까.

물론 가성비만 좋은 식당은 아니다. 돼지고기와 낙지, 여러 채소를 넣어 끓인 찌개는 감칠맛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역시 맛있게 먹으려면 낙지와 돼지고기를 먼저 상추와 깻잎 등에 싸 먹고, 국물이 좀 더 자작하게 줄어들면 밥에 비벼 먹는 것이 좋으며 친절한 종업원이 안내해준다. 푸짐한 고기도 좋지만, 정갈한 밑반찬들도 군침을 돋게 한다. 청주의 ‘빨간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일부러 찾은 사람이라면 점심과 저녁 사이 브레이크타임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주소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38-1

전화 043-252-8032

영업시간 11~22시(브레이크타임 15~17시, 매주 일요일 휴무)

메뉴 짜글짜글(2인 이상) 1만 원, 생삼겹살 1만4천 원

글 정명호 사진 307스튜디오(김재형)

춘곤증을 이기는 봄의 맛, 냉이

딱딱한 땅을 비집고 나와 향긋한 봄 내음과 강한 생명력을 전하는 냉이. 오늘은 식욕을 돋워주고 춘곤증까지 막아주는 냉이로 냉이 페스토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자.



봄이면 마트의 채소 매대는 물론, 우리나라 산과 들 곳곳에 흐드러지게 모습을 내보이는 식재료가 냉이다. 그런데 그 흔한 냉이가 봄철 피로 회복은 물론 춘곤증에도 탁월한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비타민 부족으로 나른해지는 봄날 오후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냉이 나물이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아낌없이 주는 냉이

독특한 향이 일품인 두해살이 풀 냉이는 ‘냉(冷)을 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방에 따라 ‘나쟁이’ 또는 ‘나새’라고 부르기도 한다.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엔 종종 냉이 ‘제’ 자와 나물 ‘채’ 자를 써서 ‘제채(齋菜, 왕성하고 풍성한 풀)’로 불리기도 한다. 영문으로는 ‘양치기 주머니(shepherd’s purse)’와 ‘어머니 마음(mother’s heart)’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양치기 주머니’는 냉이의 삼각형 모양 꽃망울이 양치기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머니 마음’은 냉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감싸는 잎의 모양이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 마음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니 서양에서도 키 작은 풀 더미를 허투루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냉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강인한 생명력을 전했던 셈이다. 냉이의 꽃말은 의미심장하게도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다.



<동의보감>에 ‘냉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달고 독이 없으며 간 기능을 도와 간의 해독작용을 한다’고 기록돼 있다. 중국의 약학서 <본초강목>에서는 냉이가 ‘간기(肝氣)를 소통시키는 데 능하고, 오장의 각 기관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준다. 아울러 눈을 밝게 하고 열독을 풀어주며 위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전한다. 조선 영조 시절의 내의원 유종림이 간행한 농업책 <증보산림경제>에는 ‘냉이는 성질이 따뜻해 오장을 이롭게 한다. 죽을 끓여 먹으면 간에 이롭고 눈을 밝게 하며, 씨앗을 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냉이의 효능은 21세기에도 유효하다. 냉이에는 비타민A, B1, C와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체내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당연히 만성피로 해소와 춘곤증 예방에도 좋다. 더불어 냉이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장내 유익균 번식과 해독작용을 하므로 장 속의 나쁜 균과 독소를 제거해 숙변, 변비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잎의 베타카로틴, 뿌리의 콜린 성분은 간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시력을 보호하고 혈액 건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 앞으로 냉이를 먹을 때 좀 더 곱씹으며 감사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냉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체내에 결석이 있는 사람 역시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냉이가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우라면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식탁 위의 향긋한 봄

냉이는 꽃이 피면 먹지 못한다. 새순이 나올 때가 제일 부드럽고, 영양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니 고를 때 참고하자. 잎의 모양이 크지 않아야 하며, 상하거나 지무르지 않은 것으로 잘 골라야 한다. 싱싱한 잎은 짙은 녹색을 띠며 윤기가 돈다. 냉이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은데, 그 향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뿌리가 너무 단단하지 않아야 한다. 뿌리가 누르스름하거나 마른 것은 오래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냉이는 어린잎과 뿌리를 나물로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 것이 보통인데, 어린잎을 죽에 넣어 먹기도 한다. 특유의 씹쓸함과 향긋함을 느끼는 순간,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냉이 페스토 오픈 샌드위치

향 좋은 냉이는 나물과 된장국으로 먹으면 좋다. 하지만 기왕 냉이 한 단을 구입했다면 간단하게 그 향과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냉이 페스토(pesto, 가열 조리하지 않은 그린 소스)를 만들어 곁들이는 오픈 샌드위치는 식탁에 봄기운을 한가득 불러 넣어 줄 것이다.



주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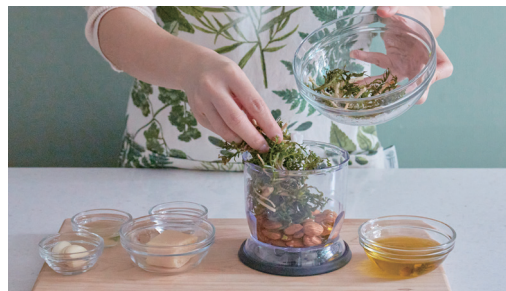
샌드위치용 빵. 기호에 맞춰 곁들일 재료들(새우, 달걀,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 프로슈토 등).

페스토 소스 재료

냉이 80g, 파르미지아노 치즈 혹은 파르메산 치즈 60g, 아몬드 70g, 레몬즙 4T, 마늘 2쪽, 소금 1t, 올리브유 130ml.



01 냉이는 뿌리째 손질해 갈기 좋게 자르고, 아몬드는 건조한 팬에 구워 한 김 식힌다(페스토 색을 초록색이 짙게 나오도록 하고 싶으면 냉이 잎 위주로 준비한다).



02 블렌더에 냉이 페스토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곱게 간다.



03 버터나 올리브유를 팬에 두르고 샌드위치용 빵을 바삭하게 굽는다.



04 구운 바게트에 냉이 페스토 소스를 잘 바르고, 기호에 맞는 재료를 올려 완성한다.

글 정명호 사진 307스튜디오 요리 강혜정(온기쿠킹스튜디오)

환테크를 아시나요? 2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재테크 part 3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3고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아는 것이 힘.
지난 호에 이어 환테크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다. 코로나19 사태로 넘쳐난 유동성이 물가를 끄집어 올린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물가는 더 치솟기 시작했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선택한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이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극심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 모든 시장 참여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로 인해 최고 금리 수준을 5.5%~6%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진 것이다.

원화는 절하, 달러는 절상

이런 상황에서 환율 역시 '킹 달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2022년 9월, 1,450원대에 육박한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정된 추세지만 여전히 달러 환율은 1,290원~1,300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올린 금리로 인해 환율까지 덩달아 오른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의 것보다 1.25% 낮은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보다 신용도나 국제 위상이 떨어지는 한국은 보통 금리를 더 높게 하면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유도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버리자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원화는 평가 절하, 달러는 평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는 ‘짠테크’를 하거나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입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이다.

환테크는 저평가 외환을 사 고평가 시점에 파는 것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환율 투자다. 일명 ‘환테크’라고 불리는 환율 투자는 저평가된 외환을 구매하여 고평가된 시점에 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 사이에서 외환 차익을 얻는 방법의 투자로, 외환 차익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과연 저평가와 고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명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거시 경제를 14분 동안 공부했다면, 12분은 허공에 시간을 버린 것입니다.” 투자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외환 영역에서의 최적 타이밍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거시 지표들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시 지표들이 100%의 정확성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PCE와 CPI

환테크 시 봐야 할 첫 번째 거시 경제 지표는 PCE와 CPI다. PCE와 CPI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지표다.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줄임말로 미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 지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소비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지만 주택/토지 구매 비용은 제외한 지수라고 볼 수 있다. CPI 역시 PCE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측정에 주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는 지표다.

여기서 잠깐, PCE와 CPI는 무슨 차이일까? PCE와 CPI 모두 경기 후행 지표로서 물가 전반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만, PCE는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간접비(의료, 보험 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물가를 추적한다. 다만, CPI의 경우 물가연동채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어 PCE보다 언론에 더 자주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두 지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판단 지표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PCE나 CPI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연준은 빅스텝(50bp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달러 환율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달러 인덱스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다. 달러인덱스란 환율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달러 인덱스는 간단하게 말해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 통화와 미 달러의 교환 비율을 각 나라 무역 비중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기하평균이다. 이 설명은 어려우니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와닿을 것이다. 주요국 통화로는 유로,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프랑이 있다.

달러 인덱스(달러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각 나라마다 달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러가 유로 대비 10% 하락했는데 엔화 대비 5% 상승한 경우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려면 달러 지수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는 셈이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잘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파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율 투자 시 반드시 마킹해야 하는 지표라 볼 수 있다.



3. PCR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지표로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제공하는 equity Put-Call Ratio(PCR)이다. CBOE PCR은 개별 주식들의 풋옵션 거래량을 콜옵션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PCR이 1 이상인 경우 풋 거래가 콜 거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한 옵션 투자자들이 풋 거래를 많이 했거나 콜 거래를 적게 한 것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이 지표가 1 이상이라면 시장이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파악하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이 지표를 보시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데이터로 볼 때 주가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S&P 500과 PCR의 추이를 분석했더니 S&P 500이 치솟았던 시점에 PCR은 바닥을 향해갔고, 반대로 PCR이 치솟은 시점에 S&P 500은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표를 눈여겨 봐야 한다.

오늘은 환율 투자 시 반드시 알아보면 좋을 거시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다. 피터 린치의 말처럼 거시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망망대해에 아무 지표도 없이 항해하는 배보다 오래된 지도나 나침반이라도 들고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통해 최대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 썬바라미(경제 블로거)

20대를 위한 재테크 체크리스트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공제회 회원의 생애 주기별 재테크를 돕기 위한 2060 재테크 체크리스트.
그 첫 번째로 20대를 위한 9가지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오늘은 20대 청년들과 재테크를 함께 고민해보자. 지난 30여 년간 은행 PB를 거쳐 현재 자산관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는 동안 5천여 회의 재무 상담과 그만큼의 재무 강연을 통해 얻어진 필자의 경험을 압축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공유하려 한다.

20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30대를 준비하고 60대 이후 노년기까지를 대비하는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첫 단계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대부분 직장인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다. 그러다 보니 전월세 거주를 하거나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해 벌써 채무자의 삶에 허덕이는 청년도 많다. 마이너스통장을 가불한 월급처럼 꺼내 쓰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학자금 용자가 있음에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월급 액수를 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고층건물일수록 정밀한 설계도와 튼튼한 기초공사가 필수다. 오두막집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건축물은 설계도 없이 감으로도 지을 수 있지만 안전하지도 멋지지도 않다. 20대 청년이 다음 아홉 가지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풍요로운 재무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다.



#1

재테크의 시작은 신용자산 확보부터

‘신용’은 무일푼일 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백수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안정적인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면 그동안 무시하던(?) 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안받을 수 있다. 뭐가 달라진 걸까? 소득원 확보는 가장 훌륭한 신용 자산이다. 은행은 직장을 통해 그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확인한 것이다. 수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떼먹기 위해 소중한 직장을 버리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월간 사용 한도가 정해진다. 신입사원과 부장급 사원의 한도는 다를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연봉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천만 원도 모으지 못한 청년이라도 직장인이자면 일단 막강한 신용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재만으로 의미가 크다.

#2

재테크의 적은 감가 상각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면 재테크가 아니라 소비 활동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들 수 있다. 집 다음으로 고가의 자산이지만 매년 높은 수준의 감가 상각이 발생하는 자산이다. 어떤 청년은 ‘명품 재테크’를 주장하지만 관련 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년간 벌여 구입한 자산이 10년 후에 제로에 수렴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재테크의 기본은 내 집 마련이다

나만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일상이 안정화된다. 1인 청년 가구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집이나 정착 공간이 없이 고시원이나 숙박시설을 전전한다면 그 무엇도 계획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웬만한 입지의 집값은 월급만으로는 장만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어쩔 수 없이 장기 플랜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망한 입지의 신축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라도 화장실이 2개이므로 자녀를 낳고 사는 데 충분하다. 청약 당첨 전까지는 출퇴근에 불편이 없는 역세권에서 좀더라도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현실이 고달플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이런저런 가전제품 구입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내 집 마련은 청약통장 가입으로 시작하자

유망한 입지의 '착한' 가격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청약홈 사이트를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봐야 한다. 동시에 청약의 필수 조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10만 원씩 자동 이체를 걸어놔야 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월납 금액 카운팅을 10만 원까지만 하기 때문이다. 추가 납입할 돈이 있다면 다른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좋겠다.



#5

청년 우대 재테크 제도를 찾아보자

어느 때보다 힘든 20대를 보내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각 단체에서 청년 우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장려 금리를 더해주고, 청약통장도 청년 자격으로 가입하면 우대 금리를 지급하고, 청약 제도에서도 특별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정책도 눈여겨보자. 또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 기여금까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2023년 출시될 예정이다.

#6

절세 활동을 재테크 DNA로 만들자

2023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대략 13종이 있다. ISA, 비과세종합저축, 외화예금 환차익,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성보험, 장기채권 매매차익, 예탁금,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금저축, IRP, 브라질국채 등이다. 그중에서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한도껏 불입하기를 권한다. 1인 가구 중심의 20대는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받을 항목이 적으므로 최대 9백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연금상품이 유용하다.



#7

청년기의 재테크 가능성은 보험으로 지키자

별 탈 없이 살아간다면 30대를 거쳐 40대 이후로 나아가고, 자연스럽게 자산이 축적된다.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는다면 재테크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하자. 다만 월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

외화 자산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자

50대 이후 세대들은 IMF외환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유럽재정위기 등 10년 주기로 들이닥쳤던 경제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 때마다 원화 자산은 폭락하여 큰 고통을 주었다. 반면 달러 예금이나 금 투자 같은 외화성 자산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켰다. 그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부터 장기 분할 투자의 개념으로 매월 100달러 적금과 금통장에 1그램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자. 해외발 위기가 오면 든든한 재테크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청년기의 경험 자산은 미래의 웬만한 실물 자산보다 낫다

20대의 재테크 실패와 60대의 재테크 실패는 하늘과 땅 차이다. 보유 자산의 크기도 그렇지만 회복할 시간의 차이가 가장 문제가 된다. 금융권의 인기 펀드 상품 중에 TDF(Target Date Fund)라는 것이 있다. 이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해 생애 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다. 즉 젊을 때는 고위험 상품 위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은퇴 시점에 다다르면 저위험상품 위주로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의 펀드다.

여러 가지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거나 모두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가지만이라도 이달에 당장 실행해보길 권한다.

글 유평창(평생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봄의 시작을 즐기며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토끼를 찾아라> 등의 전시와 뮤지컬 <영웅>까지 봄의 시작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문화행사를 소개합니다.



EXHIBITION

<토끼를 찾아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 왕릉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십이지 토끼상'부터 '달에서 방아를 찧는 토끼', '매를 피해 숨은 검은 토끼', '둥근 달을 바라보는 토끼' 등의 서화를 감상할 수 있다. 토끼를 통해 역운을 물리치고 길운을 불러들이려는 선조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기간 | 2022년 12월 27일(화)~2023년 4월 23일(일)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관람료 | 무료



EXHIBITION

<조각. 공간. 퍼즐>

3월 초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조각. 공간. 퍼즐>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2명 조각가의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을 재조명하고, 현대 조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돌, 철, 흙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예술가들의 손을 통해 빚어진 조각 작품을 만나보는 기회.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다.

기간 | 2023년 3월 3일(금)~2023년 5월 7일(일)

장소 | 대전시립미술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

관람료 | 성인 500원, 어린이 300원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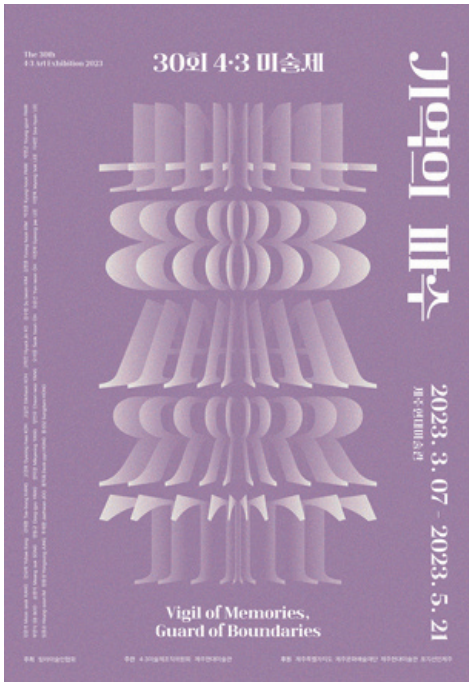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우리 전통문화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조선백자 전시를 봐야 한다. 검약을 미덕으로 삼은 조선 시대는 ‘백자의 시대’로 불릴 만큼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백자가 유행한 시기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10점과 다수의 보물을 포함한 수준급 백자가 전시되고 있어 조선백자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리움미술관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사전 예약이 필수다.

기간 | 2023년 2월 28일(화)~2023년 5월 28일(일)

장소 | 리움미술관(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관람료 | 무료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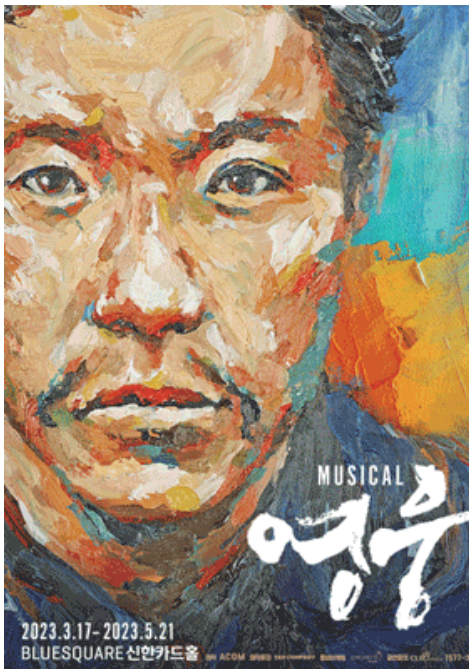
<기억의 파수>

제주 4.3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3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4.3 미술제가 올해 30회를 맞았다. 이번 <기억의 파수> 전시에서는 ‘먼저 꾸었던 꿈’, ‘봉인된 섬’, ‘다시 맞은 봄’ 섹션을 통해 제주 4.3 항쟁을 알리는 회화, 판화, 사진 등 총 48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 4.3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4.3 미술의 방향성을 그려보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기간 | 2023년 3월 7일(화)~2023년 5월 21일(일)

장소 | 제주현대미술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MUS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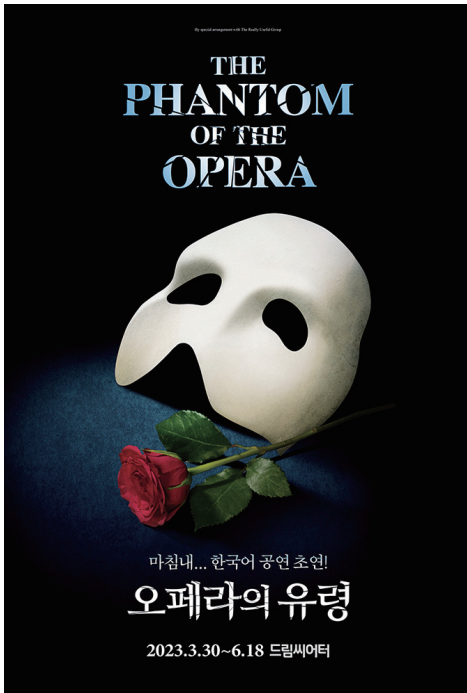
<영웅>

안중근 의사의 서거 전 마지막 1년을 그린 창작 뮤지컬 <영웅>이 연장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이어진 뮤지컬 <영웅>은 동명의 영화 <영웅>과 같은 시기에 개막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배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등이 안중근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3월부터는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몰입도 높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기간 | 2023년 3월 17일(금)~2023년 5월 21일(일)

장소 |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4)

관람료 |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00,000원, A석 70,000원



MUSICAL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적인 작품. 최근 국내에서는 배우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 등이 오페라의 유령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 <오페라의 유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부산에서 약 10주간의 공연을 선보이고, 7월 서울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간 | 2023년 3월 25일(토)~2023년 6월 18일(일)

장소 | 부산 드림씨어터(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관람료 | VIP석 190,000원, R석 160,000원, S석 130,000원, A석 90,000원, B석 70,000원

글 김성식

나의 여행은 이 땅의 호흡을 닮는다

연륜이 쌓일수록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이 땅을 여행한다는 것이 애뜻하고 각별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나와 이 땅의 호흡이 닮아서인지도 모른다.



이 꽃 저 꽃 다 피어 설렘 가득한 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막 빠져나온 뒤의 첫봄이라 그야말로 동지 설달 꽃 본 듯 반갑다. 더 푸르고 맑아진 강물 위를 나는 새의 날갯짓이 한없이 가볍고, 꽃소식 담아 불어온 바람도 참 기분 좋다. 개울가 갯버들이 틈은 새싹이 겨우내 움츠렸던 몸속의 여행 세포를 뒤흔들어 깨우니 어디로든 떠나야겠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삼천리 금수강산(三千里 錦繡江山)’은 ‘아름답게 수를 놓은 비단 같은 산천’이란 뜻으로,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빗댄 말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풍광의 수려함을 이처럼 잘 담아낸 문구가 또 있을까 싶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그만큼 다양한 자연의 풍광이 철마다 펼쳐진다. 봄꽃으로 화사해진 대지는 곧 빈틈없이 신록으로 뒤덮이며 천둥소리 요란한 여름에 접어들고, 귀뚜라미가 시를 쓰는 가을이 오면 문밖만 나서도 눈이 호강이다. 낙엽이 지고 캠프 사이트의 화롯불이 따뜻해지는 겨울은 가장 낭만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때다. 사철 만나고 느끼는 서정이 다 매력적이니 도무지 여행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지리산의 봄

나에게 봄은 꽃시절이다. 무채색 추운 겨울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봄꽃의 기운은 실로 대단해서 몸을 들썩이게 한다. 서해 외딴섬 풍도의 풍도바람꽃과 인제 진동리 곰배령의 모데미풀과 얼레지, 한계령풀을 만났을 때의 묘한 긴장감을 잊지 못한다. 실은 길가에 흔한 개불알풀과 쇠별꽃 한 송이에도 그런 힘이 담겼다. 얼어붙었던 대지에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봄꽃들의 대행진이야말로 봄나들이의 큰 기쁨이다.

지리산에는 더 화사한 봄이 기다린다. 광양의 매화를 시작으로 상위마을의 금쪽같은 산수유가 만개하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은 그야말로 꽃으로 몸살을 앓는다. 화엄사 홍매화의 고혹적 자태는 남도 봄의 절정이다. 화엄매에 이어 지리산 남쪽 발치의 19번 국도를 따라 벚꽃이 만개하면 섬진강은 꽃강이 되어 흐른다. ‘쌍계사 십리 벚꽃길’을 걸어보았던가? 꽃 멀미 나는 이 길은 황홀한 봄의 세레나데다. 이어 하동의 배꽃이 만발하고 지리산 세석고원과 아래봉엔 철쭉이 피어나 봄의 왈츠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굴업도의 언덕. 섬 여행은 여름이 제철이다. 사진/이승태

뜨거운 여름에 푸른 바다와 계곡만 한 곳이 또 있을까! 코발트블루의 동해와 몽돌 해변이 많은 남해, 휴식 같은 풍광의 서해 모두 이
 름난 해수욕장이 수도룩하고, 저마다 신나는 축제가 마련된다. 또 전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여서 명산이 많고 큰 산마다 빼어난 계
 곡을 품었으니 래프팅과 계곡 트레킹이 빠진 여름은 싱겁다. 동강과 한탄강, 경호강 같은 거친 물살을 찾아 대자연의 호흡을 그대로
 느껴보는 래프팅은 더위를 한 방에 물러가게 한다. 인제의 아침가리골, 울진의 왕피천, 양양의 남대천 등 계곡 트레킹 명소들은 우리
 산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옥빛 물길을 따라 온갖 컬러의 자갈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오지의 청정 계곡을 걸어 보
 라! 내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섬 여행은 여름이 제철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894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는 유인도도 462개나 된다. 울릉도와 가거도, 매
 물도, 여서도, 관매도, 굴업도 등 독특한 풍광으로 가득한 섬들은 세계인이 부러워할 우리만의 자랑이다. 청정 자연과 오지, 낱것의
 거친 매력까지 갖춘 섬을 찾을 때마다 내가 세상 최고로 행복한 여행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용담과 금강초롱. 가을 들꽃은 유난히 아름답다. 사진/이승태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을 두 번째 봄이라 했던가? 흘림골이나 주전골, 백담사와 천불동 · 가야동계곡 등 단풍 명소가 널린 설악산
 은 물론, 북한산과 내장산, 지리산, 한라산 등 전국 대부분의 명산은 만산홍엽의 황홀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굽이진 능선마다 부는 가
 을의 서늘한 바람은 맑고 청량한 감성의 결을 건드리고, 풍광은 서정시처럼 흐르며 빛난다. 구절초와 비로용담, 자주스승, 산부추 같
 은 고산에 핀 가을 들꽃은 그 때가같이 더 짙고 애절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즈음엔 이 꽃들 때문이라도 꼭 산을 찾는다. 그래야 제대
 로 나의 가을을 만나고, 또 떠나보낼 수 있어서다.



겨울은 축제의 계절이다. 송어와 산천어, 빙어, 대게, 군밤, 눈꽃 등 온갖 이름을 내건 페스티벌로 팔도가 시끌벅적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 추울수록 더 흥겨워지니 ‘방콕’은 어림도 없다. 대한민국의 겨울엔 눈이 내린다!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사실 이는 축복이다. 또 우리나라만큼 예쁘게 눈이 내리는 곳도 드물다. 쌓이는 눈으로 인해 우리의 여행은 더 로맨틱하고 따뜻해지며, 삼삼오오 둘러앉은 캠핑장 화롯가마다 이야기꽃이 핀다.

낮선 곳에서 아침을 맞으며, 달빛 그윽한 밤에 홀로 걸으며,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동안 계절이 오고 가는 자연 앞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자연을 닮아가는 것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벚꽃이 만발했던 4월이 가고 머잖아 꽃잎을 다 떠나보낸 노거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나의 우리나라 여행은 좀 더 자연의 호흡에 가까워져 있기를 바란다.

글 이승태(여행작가)

세상 밖으로 함께 소풍 나가실래요? 경상남도 창녕군청 구민아 주무관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막혀 있던 여행길이 활짝 열렸다. 저마다의 이유로 떠나는 여행, 창녕군청의 구민아 주무관 역시 그러했다. 최근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담은 여행 에세이 <좋은 날이 올 거야>를 펴낸 그를 만나보았다.



자유여행에서 만나는 자유

여행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그 무엇이다. 황금연휴를 이용해 멀리 떠나고픈 직장인, 집안 살림에서 놓여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자유를 느끼고 싶은 주부, 자식들에게 천국을 선물해주고 싶은 부부, 더 큰 세상을 만나고 싶은 학생... 경상남도 창녕군청 노인여성 아동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민아 주무관 역시 그랬다.

“대학생 시절 제약회사에서 주최하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임진각까지 20일 동안 걸어서 550km를 종주했어요.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두 발로 횡단하면서 문득 더 넓은 곳으로 걸어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휴학을 하고 호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100일 동안 제 키만 한 배낭을 메고 호주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고도 용감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제처럼 생생했던 그 여행을 떠올리는 듯 구민아 주무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구민아 주무관을 세계 곳곳으로 이끌었다. 학생 시절을 거쳐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의 여행은 멈추지 않았다.



구민아 주무관의 여행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바로 ‘자유’다. 패키지여행의 장점을 알고는 있지만 자유여행이 주는 진짜 자유를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자유여행만 다녀요. 패키지여행의 장점도 많지만 저는 유명한 장소나 꼭 봐야 하는 것들을 못 보더라도 여행지에서 느껴지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길을 헤매기도 하고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일정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아이가 생기고 함께 여행하면서부터는 숙소도 동선도 미리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요.”

몰랐던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그렇다면 구민아 주무관은 낯선 곳에서 부딪힐 걱정이나 외로움은 느끼지 않는 것일까?

“저는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 설레고 흥분되는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번 여행 가방을 싸습니다. 타지에서는 외로움이나 두려움보다 기대감, 설렘이 앞서요. 보통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데 혼자 여행을 할 때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계속 내 눈앞에 전신 거울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내면의 전신 거울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가 눈앞의 사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나 자신을 똑바로 본다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또한 나의 일부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여행을 떠난다. 구민아 주무관에게 여행이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여정이다. 20개국 이상을 다니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은 인도 바라나시 지역의 소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소년은 우리에게 마을 구석구석을 소개해주며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이미 인도인들의 크고 작은 거짓말에 지쳐있던 우리는 그 소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인도에 며칠 머무르곤 인도인을 다 안다고 쉽게 일반화해버린 여행자의 오만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지요. 바라나시를 떠나버려 소년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이후로는 여행을 할 때 보다 겸손한 여행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인도 소년을 통해 크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한 자각, 숨겨져 있던 나의 오만함. 여행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거나, 깨닫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그 일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구민아 주무관의 삶에 내내 영향을 미쳤던 소중한 기억이다.

여행이 주는 긍정의 효과를 만나세요

여행의 보석 같은 순간들은 구민아 주무관을 자연스럽게 책상 앞으로 이끌었다. 세월이 쌓여가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빗처럼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행에 대한 추억은 오래 간직하고 싶었기에 활자로 눌러 담아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낼 만한 능력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추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기를 써왔는데 출판 쪽 일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어 운 좋게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책 첫머리에 ‘나의 여행 파트너, 두 딸에게 이 책을 전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더니 아이들이 무척 감격하더라고요.”



구민아 주무관의 여행 에세이 <좋은 날이 올 거야>는 ‘Part 1. 떠나다;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떠나다’, ‘Part 2. 만나다; 피고 지는 인연을 만나다’, ‘Part 3. 생각하다; 마주한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등으로 나뉘어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구민아 주무관은 자신을 두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과 소소한 느낌을 글로 옮기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안팎에서 여러모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2020년 창녕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고 2021년에는 책을 펴내 작가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것이다.

“평소에는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최대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려고 노력해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자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하루하루를 꼭 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행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구민아 주무관은 모든 공제회원에게 소풍 가듯 떠나는 여행을 권했다.

“꼭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장소에서 아주 조금만 움직여 풍경을 바꾸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여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여행의 갈증을 가까운 곳부터 가볍게 소풍을 가듯 떠나며 해소해보면 어떨까요?”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

꽃향기 따라 축제 속으로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 봄이 기지개를 켜다. 봄소식을 향긋한 꽃향기로 가장 먼저 전하는, 전국의 대표적인 꽃 축제로 떠나보자.



사진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제공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비롯해 순천 도심 일원에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2013년 개최 후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데, 정원이 삶이 되고 우리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정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을 도심까지 확대했다. 일부 공간에서 펼쳐지는 박람회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정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시를 재단장한 것이다.

박람회는 또 맨발로 거니는 ‘어싱길’, 과거와 현재를 품은 ‘정원드림호’, 정원에서 누리는 특별한 하룻밤 ‘가든스테이’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특히 프리미엄 정원 상품인 ‘가든 스테이 순천, 실랑계’는 60만 평 정원에서 하루에 100명만

누릴 수 있는 관람, 체험, 숙박, 가드닝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된다.

국가정원 내 총 35동의 숙박시설인 캐빈은 전체가 삼나무로 지어져 은은한 향과 피톤치드가 가득하며, 전용 레스토랑에서는 20년 경력의 셰프가 순천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저녁 만찬과 조식 반상을 제공한다. 예약 시 2일간의 박람회 입장권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사진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제공

진해 군항제

봄의 시작을 직관하고 싶다면 진해로 달려가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군락지 진해에는 봄마다 주택가 골목, 가로수, 기차길 그리고 진해 해군사관학교 안에도 벚꽃이 앞다퉁 만개한다. 진해 군항제는 1952년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진해에 세워질 때 추모제를 올린 것이 시초다. 1963년부터 명칭을 진해 군항제로 바꾼 다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었는데 마침 이때가 벚꽃의 만개 시기와 겹치며 대표적인 벚꽃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진해 군항제가 ‘진해 벚꽃축제’ 같은 일반적인 꽃 축제의 명칭이 아니라 ‘군항제’로 불리는 이유다. 때문에 군항제에는 추모대제, 승전행차 퍼레이드, 군악의장페스티벌 등 특별한 행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여좌천,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장복산도로, 경화역 등이 대표적인 벚꽃 명소지만 무엇보다 평소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꼭 들러야 할 장소다. 아름다운 벚꽃은 물론 박물관 및 거북선 관람, 함정 공개, 해군복 입기, 요트 크루즈 승선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진 | 김영란, ‘경화역의 봄’. 창원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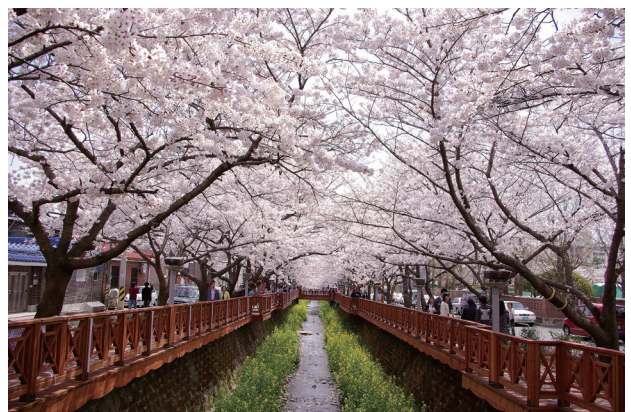


사진 | 픽사베이

2023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태안의 대표 명소이자 국내 화훼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4월 12일부터 2023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람바다, 멘톤, 빅스마을, 크림플래그 외 200여 품종의 튤립이 전시된다. 태안 세계튤립꽃 박람회는 2015년과 2017

년 세계 튤립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스카짓 밸리, 호주 캔버라 플로리아드 봄꽃 축제, 터키 이스탄불 튤립 축제, 인도 스리나가르 축제와 함께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됐다. 축제는 튤립 구근을 2단으로 심어 시차를 두고 꽃을 피워내는 2단 식재 기법을 활용해 2주간 감상할 수 있던 튤립을 최대 4주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꽃으로 장식된 성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전망대에서 웅장한 튤립 꽃밭을 색다르게 감상하자. 넓고 화려한 튤립 사이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꽃으로 장식된 거대한 조형물과 소나무와 어우러진 화려한 튤립 꽃밭도 인기 스팟이다.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과 남면 팜카밀레, 안면도 휴양림, 소원면 천리포수목원 등 인근의 유명 관광지와 연계해 다녀오기 좋다.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진 | 코리아플라워파크 제공

함평 나비대축제

싱그러운 봄바람과 꽃향기에 취한 나비들이 춤을 추는 고장 함평. 매년 4월 함평에선 나비대축제가 열린다. 1999년부터 시작돼 올해 25회를 맞는 함평 나비대축제는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하는데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 표본 450종 9천여 마리를 구경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알에서부터 애벌레를 거쳐 나비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이나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예정이다.

함평 나비대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과는 다르게 철저한 계획과 노력 끝에 대성공을 거둔 특별한 축제다. 함평은 전체 군민의 7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농가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곤충연구소를 세우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나비대축제는 이제 대표적인 봄철 축제이자 국비 지원 없이도 흑자를 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함평 나비대축제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2016년 축제콘텐츠 부문, 2017년 축제경제 부문, 2018년 글로벌명품 부문에서 수상했고 2019년에는 축제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진 | 함평 나비대축제 제공

글 이지혜(여행 칼럼니스트)

낭만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차박 여행지 6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봄. 차 한 대와 함께 자연의 품에 안겨보는 건 어떨까?
차박이 멀게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낭만과 설렘을 가득 안겨줄 차박 명소를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

고성 송지호 해변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송지호 해변은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바다를 품은 차박 여행지로 유명하다. 동해안의 명소들과 마찬가지로 짙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일품이지만 한적한 분위기에서 차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리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 속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역시 송지호 해변이다. 해수욕장 한편에 마련된 캠핑장에서 에메랄드빛 동해와 새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진 풍경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차박을 즐겨보자. 도보 5분 거리에 송지호 향이 있어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담한 시골 항구의 풍경도 눈에 담을 수 있다. 캠핑장 주변에 화장실이나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소 | 강원 고성군 죽왕면



©한국관광공사

강릉 안반데기

국내 차박 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곳, 해발 1,100m 고지에 위치해 ‘구름 위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강원도 강릉의 안반데기다. 이름 처럼 손에 닿을 듯한 구름이 마을 전체에 잔잔하게 깔려있다. 구름이 무거운 날에는 구름이 지붕까지 내려앉아 아늑하면서도 묘한 분위기다. 마을 사람들이 너른 산비탈에 일군 배추밭 풍경도 일품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놓은 듯하다. 안반데기는 별 관찰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방이 산과 밭이다 보니 밤이 칠흑처럼 어두워 유독 별이 더 밝고 많다. 민박을 이용해 하루 머물 수 있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이불 삼아 잠들어 보고 싶다면 멩에 전망대 부근의 임시 주차장을 찾아가자.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과 마을을 뒤덮은 구름, 저 멀리 강릉 앞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은하수도 볼 수 있다. 주소 |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연천 주상절리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 경기도 연천에 자리한 주상절리는 신비로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 덕에 캠핑 마니아들이 손꼽는 차박 명소 중 하나다. 잔잔하게 흐르는 한탄강을 따라 주상절리가 화려한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주상절리와 마주한 강변에 차박이나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 워낙 경치가 뛰어나 장기간 머무는 캠퍼들도 많다. 주상절리의 독특한 형상과 반짝이는 강물을 감상할 수 있는 낮도 좋지만 절벽 너머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저무는 노을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노지 캠핑장이지만 화장실도 갖췄다. 주변에 한탄강 둘레길과 한탄임진강지질공원이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주소 |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817



©한국관광공사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뽀뽀한 자작나무 풍경으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 70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빼곡하게 모여 있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현실적인 경관에 탄성을 내지르게 된다. 20m를 웃도는 높은 키에 얇고 새하얀 기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시의 소음들은 전원을 끈 것처럼 고요하다. 오로지 나뭇잎이 부딪히는 간지러운 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다. 자작나무 틈새로 새어 들어온 봄 햇살은 신비롭고 따스하다. 어디선가 요정이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풍경. 숲속에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있어 자작나무들의 아늑한 품속에서 차박도 즐길 수 있다. 낮 시간을 이용해 산책 코스를 둘러보고, 해가 질 무렵 캠핑장으로 돌아와 낭만적인 밤을 누려보자. 주소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



©한국관광공사

충주 충주호

총면적이 67.5km²에 달하는 충주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마치 파도 하나 없는 너른 바다 같은 호수의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은 만큼 충주호 주변에는 차박이 가능한 오토캠핑장과 오붓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노지가 많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디서든 정면으로 탁트인 호수 풍경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안락하게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느낄 수 있는 매력도 따로 있다. 호수 위로 물안개가 구름처럼 떠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더욱 낭만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함암리 361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충주 목계솔밭

도로를 따라 최소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밭. 햇살이 뜨거운 한낮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어 캠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다. 우리나라 최대의 무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캠퍼들이 찾아오지만 약 3,800평에 달하는 너른 부지 덕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4~5월에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유채꽃과 청보리가 끝없이 펼쳐져 향긋한 봄의 기운까지 만끽할 수 있다. 화장실과 취사장, 샤워실, 간이매점, 데크까지 꼼꼼하게 갖춰져 있어 차박 초보자라도 걱정이 없다.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다. 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함암리 361



©한국관광공사

글 고아라(<아웃도어> 매거진 기자)

사진 한국관광공사

POBA LIFE

POBA MAGAZINE VOL.20



인터뷰
청주시청
청년정책팀

회원 추천 여행지
경상북도 영주시

테마
#국내여행

제철 요리법
춘곤증을 이기는 봄의 맛,
냉이

POBA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희 이사장

POBA NEWS

POBA LIFE

POBA MAGAZINE VOL.20

인터뷰
청주시청
청년정책팀

회원 추천 여행지
경상북도 영주시

테마
#국내여행

제철 요리법
춘곤증을 이기는 봄의 맛,
냉이

POBA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희 이사장

POBA NEWS